

재해사례 (고철)

고물 작업장에 수집된 고철 해체작업 중 폭발



고물 작업장에서 연습용 40mm 유탄과 불발탄을 구리 등으로 분해·해체 작업을 하다가 1차 폭발 후 2차 폭발 (1명 사망, 4명 부상)



! 재해발생 원인

- 위험물질 취급 및 대처요령 등 위험인지 미흡
 - 니트로화합물 계열 유탄인 경우 마찰 또는 충격으로 인해 쉽게 폭발
- ※ 연습용 유탄은 훈련용으로 발사된 후 추진체가 분리된 상태이기에 위험하지 않으나 실탄 유탄(불발탄)은 그렇지 않음에도 연습용 유탄과 동일하게 분해



+ 안전작업 방법

TIP

1 고물 반입시 폭발 위험물질 여부 사전 철저 조사

2 폭발성 물질 취급시 마찰·충격 행위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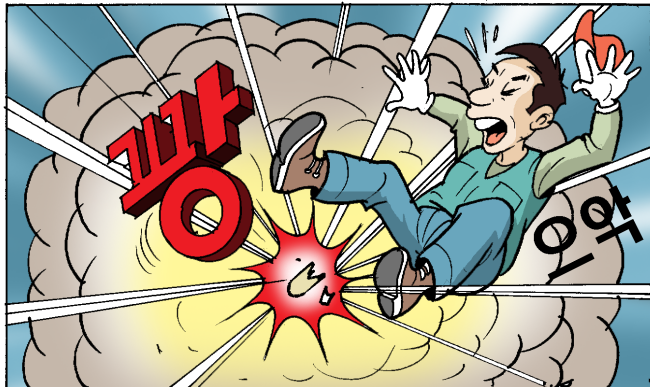
- 폭발성 물질은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산소를 소비하면서 연소. 매우 급격하게 폭발하므로 폭발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열·마찰·충격 행위 금지
- 군사 폭발물 등 위험물질은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발견시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거





고물 작업장에 수집된 고철 해체작업 중 폭발 폭발성 물질, 마찰·충격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!

고철 해체 중 불발탄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. 정말 큰 사고였는데,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

폭발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마찰·충격 행위를 금지하고, 특수 위험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거해야 합니다.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(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)